

보통강의 지명유래에 대한 연구

리호, 심철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력사이야기와 전설들은 귀중한 민족문화유산인것만큼 널리 발굴수집하여야 합니다.》
(《김정일전집》 제8권 235페이지)

력사이야기와 전설들은 지명들에도 깃들어있다. 그것은 지명에 해당 지리적대상의 자연 및 사회적특성들가운데서 가장 대표적이고 중요한 내용이 반영되기때문이다. 따라서 지명과 그 유래는 자연조사와 자원탐사, 역사적사실고증과 유적발굴을 비롯한 여러 분야의 과학연구사업과 사람들에게 조국애와 민족성을 키워주기 위한 사업에 리용되고있다.

보통강은 우리 나라의 강하천들가운데서 그리 큰 강은 아니지만 혁명의 수도 평양을 지나고있고 특히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불멸의 혁명업적이 깃들어있는것으로 하여 널리 알려져있다. 그러나 보통강의 지명유래가 전해지는것이 없으므로 우리 나라 200여개 시, 군, 구역지명들가운데서 오직 보통강구역의 지명유래만이 완전히 해명되지 못하고있다.

선행연구[4]에는 보통강에 대하여 《발로수는 ...순안현 서쪽을 지나 평양부의 서쪽에 이르러 서강이 되며 보통문밖을 지나서 대동강에 들어간다. 발로수를 평양강이라고도 한다.》고 기록되어있다.

또한 《발로수는 평양에 대한 고유조선말지명인 부루나의 리두식표기형태이고 평양강은 평양성을 지나는 강, 서강은 평양성의 서쪽을 지나는 강이라는 뜻이다. 그리고 보통강은 보통문앞을 지나는 강이고 보통강구역은 보통강으로 둘러싸인 구역이라하여 그렇게 부른다.》[1]고 서술되어있다.

이상의 자료들을 보면 보통강은 력사적시기에 따라 발로수, 평양강, 서강 등으로 불리우다가 점차 보통강으로 굳어졌다는것과 보통강이라는 지명은 옛 평양성문의 하나였던 보통문에서 유래되었다고 볼수 있다.

그런데 보통문의 유래에 대한 자료는 없다.

그러므로 보통강과 보통강구역의 지명유래를 구체적으로 밝히자면 보통문에서 《보통》의 의미를 해명해야 한다. 그러자면 먼저 옛 평양성에서 보통문의 지리적위치와 지위, 사명 등 보통문과 관련한 여러가지 내용들을 알아보아야 한다.

론문에서는 옛 평양성의 규모와 구조, 성문들의 성격과 사명의 력사지리적변천과정을 분석하여 옛 평양성의 주요성문이었던 보통문의 유래와 그것과 관련된 지명들의 유래를 해명한 내용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586년 고구려수도성으로 건설된 평양성은 대동강과 보통강, 모란봉과 만수대룡선을 리용하여 축성한 도시성곽으로서 그 내부는 북성, 내성, 중성, 외성 등 4개의 성곽으로 구분되어있었다.(그림)

북성은 당시 수도중심부일대에서 제일 높은 모란봉을 유사시 적들이 차지하지 못하도록 성안에 넣기 위하여 쌓은것이였고 그 아래의 내성은 왕궁성이였으며 중성은 국가기관들과 지배계급의 거주지였고 그 남쪽의 외성은 일반주민거주지였다.

이러한 평양성의 성벽들에는 20개에 달하는 성문이 있었는데 그가운데서 많은것들은 성문이름을 표기한 옛글들에 그 이름의 유래가 반영되어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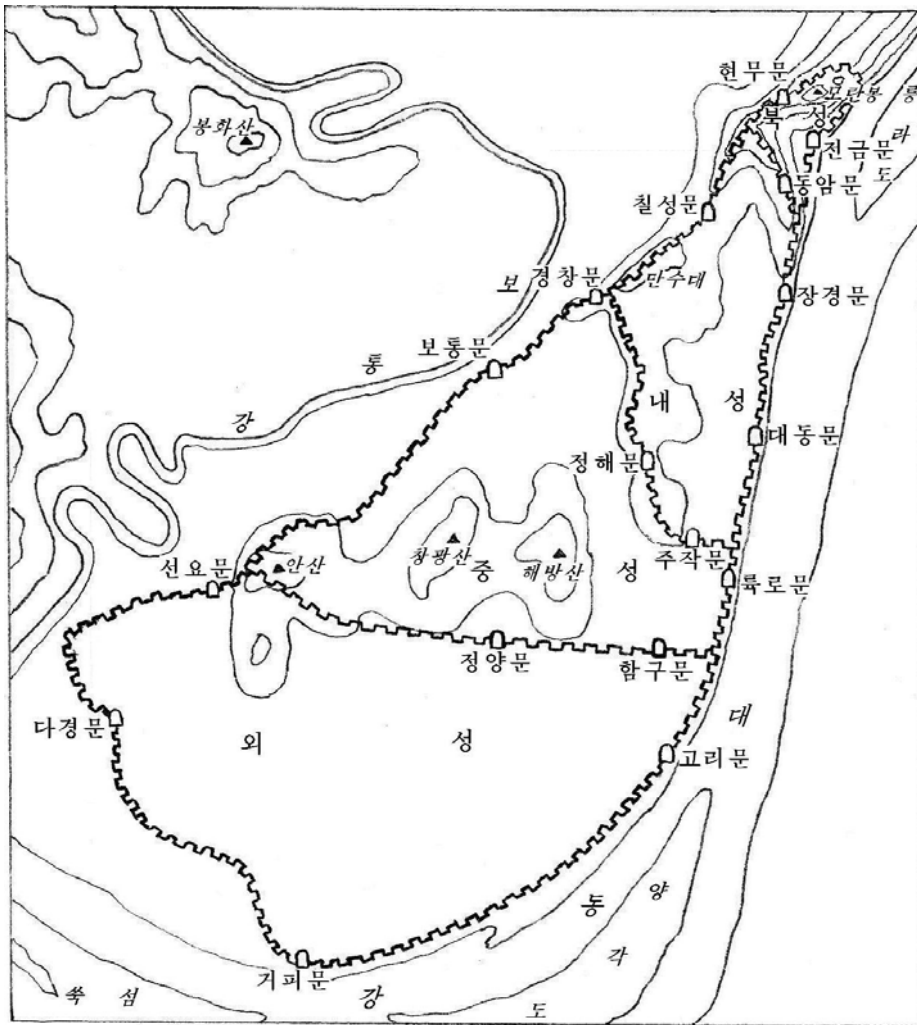


그림. 고구려시 평양성

실례로 내성의 동문인 대동문은 그것이 대동강기슭에 있다는데서 유래된 것이고 북문이었던 칠성문은 북쪽을 의미하는 북두칠성에서 유래된 것이며 남문이었던 주작문과 북성의 북문이었던 현무문은 각각 옛날에 남쪽과 북쪽을 지켜준다는 환상적인 동물인 주작과 현무에서 유래된 것이다.

보통문을 표기한 옛글(普通門)의 의미는 특별하지 않고 평범한 문이라는 뜻인데 왜 그렇게 불렀는가 하는 자료는 찾아볼수 없다. 하지만 이 성문의 건축형식과 규모, 건설과정, 위치와 사명 등 보통문의 모든 특성들은 이 성문이 평범한 일반성문이 아니라 특수한 성문이었다는것을 보여준다.

그것은 우선 《평양성도》, 《평양의 봄》 등 옛시기 지도들과 그림들에는 대동문과 함께 보통문이 제일 크고 훌륭하게 묘사되어있는것이다. 현재 옛 모습대로 보존되고있는 대동문, 보통문, 칠성문, 현무문, 전금문 등 5개의 성문들가운데서 보통문의 웅장화려함은 고구려시기 궁성의 동문이었던 대동문과만 견줄수 있으며 그밖의것들과는 대비도 안되게 훌륭한 것이다.

다음으로 고구려가 평양성을 쌓을 때 전국적으로 건축술이 가장 높은 두 사람에게 각각 대동문과 보통문건설을 책임지게 하였다[2]는것이다. 그리고 보통문은 고구려시기 평양성 서쪽 성문들가운데서 지배계급의 거주지였던 중성으로 직접 들어가는 문이였고 왕궁성(내성)과 제일 가까이 통하는 문으로서 일반백성들은 마음대로 드나들수 없었던 위치에 있었다는것이다.

이 모든 사실들은 평범한 성문이라는 보통문(普通門)의 의미와는 완전히 배치된다. 이와 함께 보통문이라는 이름이 조선봉건왕조초기문헌[5]에서부터 나오고 《보통문을 일명 우양관(又陽關)이라고도 한다.》[6]는 기록이 있는것을 보면 보통문은 본래이름이 아니라 후에 달라진 이름으로 인정된다.

그러면 보통문이라는 이름은 언제 어떻게 생겨났겠는가.

일반적으로 건축물이 오랜 기간 리용되는 과정에 그 규모와 건축형식, 사명과 기능이 변하면서 그 이름도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평양성을 그린 각이한 시기의 옛그림들과 지도들에는 보통문이 항상 대동문과 함께 제일 웅장화려하게 묘사되어있으며 그 규모와 건축형식은 지금 현지에 보존되어있는것과 다를바 없다. 이것은 보통문이 그 규모나 건축형식의 변화에 따라 달라진 이름이 아니라는것을 말해준다.

그러나 보통문의 사명과 기능은 변화되었다.

668년 고구려가 존재를 마친 후 평양은 발해의 변방지역으로 되었다가 918년에 건국된 고려에 의하여 다시 큰 도시로 발전되기 시작하였다. 고려는 장차 수도를 개경으로부터 평양으로 옮길 목적밑에 평양을 제2수도(서경)로 정하고 평양성을 옛 고구려시기 모습대로 복구하였다.

그러나 그후 평양천도를 반대하는 개경의 사대봉건통치배들을 반대하여 1135년 평양에서 일어난 폭동(묘청의 난)을 계기로 고려봉건정부는 서경을 평양부로 강급시키고 행정기구와 관직, 인구, 관할령역을 축소하였으며 평양성이 너무 크다고하면서 외성을 폐지하였다.[3] 이를 계기로 외성은 평양성밖의 농촌지역으로 되기 시작하였고 지배계층인구가 줄어든 중성에는 성벽과 성안의 도시시설들에 대한 관리보수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비롯한 일반주민들도 거주하게 되었다.

이렇게 중성의 주민구성이 변하였기때문에 지난 시기 특정한 사람들만 리용하던 중성의 기본성문(보통문)으로도 일반주민들이 드나들게 되었는데 이것은 신분차별이 엄격하던 봉건사회조건에서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는 화제거리로서 보통문으로 불리우게 된 계기였다고 볼수 있다.

임진조국전쟁후 봉건통치배들은 평양성의 내성과 북성만을 복구하였기때문에 중성도 평양성밖의 지역으로 되었고 보통문도 성밖에 놓이면서 성문으로서의 사명을 마치게 되었다. 그러나 평양사람들은 도시의 자랑인 보통문은 원상대로 복구하고 보호관리하면서 계속 보통문으로 불려왔다. 이러한 과정에 서강이라고 불리우던 강도 이 유명한 보통문앞을 흐르는 강이라는 의미가 강조되면서 점차 보통강으로 불리우게 되었다고 볼수 있다.

이상에서 본 력사지리적내용들을 종합체계화하면 보통강의 지명유래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수 있다.

보통강은 보통문앞으로 흐르는 강이라는 뜻으로서 보통문에서 유래되었다.

보통문은 고구려의 수도성이였던 평양성의 여러 성문들가운데서 서쪽의 기본관문으로서 동쪽의 대동문과 함께 가장 중요하고 웅장화려한 성문이었다. 때문에 지배계층의 사람들만 드나들던 특수한 성문이었으며 원래 이름은 보통문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후 여러차례 전쟁과 란리를 겪는 과정에 평양성의 규모와 구조, 주민구성

이 변하는데 따라 고려중엽부터 이 성문으로 일반사람들도 드나들게 되면서 점차 보통문으로 불리우게 되었고 서강이라고 하던 보통문앞의 강도 보통강이라고 불리우게 되었다.

참 고 문 헌

- [1] 김봉환 등; 고장이름사전(평양시),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8, 주체90(2001).
- [2] 차희림 등; 평양건설전사 1, 백과사전종합출판사, 278, 주체86(1997).
- [3] 최희림; 고구려평양성, 과학백과사전출판사, 70, 1978.
- [4] 丁若鏞; 《大東水經》輿猶堂全書 第十一(정약용 《大東水經》1814년의 복각본) 사회과학출판사, 324, 1966.
- [5] 李荇 等; 新增東國輿誌勝覽卷 第三(《新增東國輿誌勝覽》1530년의 복각본) 과학원출판사, 418, 1959.
- [6] 弦間孝三; 平壤大志, 偉生彙保士, 9, 1934.

주체109(2020)년 1월 5일 원고접수

History of Geographical Name of the Pothong River

Ri Ho, Sim Chol Jin

In this paper by analysing the historical and geographical change of the scale and structure of the walled city of ancient Pyongyang, and the character and mission of castle gates, the history of the Pothong Gate which was the main one of the walled city of ancient Pyongyang and other historical source of place-names associated with it are described.

Keywords: Pothong River, place name, history